

수제품 산업 · 대중 · 세계화 로 시민 삶의 질 높아진다

전주시 핸드메이드시티 선포

전주시가 수제작 부흥을 기반으로 한 산업과 문화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은 '핸드메이드 수제작 산업화와 대중화, 세계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도시, 곳곳에 다양한 분야의 수제작 공방이 산재해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일같이 수공예장터가 열리는 수공예 기반을 토대로 전주는 핸드메이드를 특화한 '손길로 만드는 행복한 문화도시'를 꿈꾸고 있다.

▲ 전주, 왜 '핸드메이드시티'인가

더불어 주는 것, 내만의 기술로 태어나는 물건과 작품을 의미하는 '핸드메이드(Handmade, 수제(手製))'는 전통문화와 예술,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숨 쉬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주는 전국 시·군 평균 1.7명에 불과한 무형문화재를 45명이나 보유하고 있다. 생활 속 취미 및 감상 등 교육 활동이 꾸준히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또, 공방을 비롯한 수제작 관련 업체만도 200여 개가 넘어서고, 수제작품 시장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곳곳에서는 수제작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플라마켓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최근 수제작을 활용한 젊은 창업자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는 추세다.

시는 이처럼 강점을 지닌 오랜 수제작 전통과 수많은 콘텐츠들을 앞세워 다양한 분야와 많은 시민들의 활동이 축적된 수제작 분야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핸드메이드를 새로운 시민문화로 정착시키고, 전주를 핸드메이드시티 특화 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오태수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1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2017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워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핸드메이드를 일상적인 시민문화로 정착시키고, 손으로 만드는 수제작 산업의 활성화와 시장가치를 창출하는 핸드메이드 산업을 부흥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 손길로 만드는 행복한 문화도시

이처럼 무한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가 핸드메이드시티 특화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것도 핸드메이드산업의 창조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화하고, 생활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적 핸드메이드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포석이다.

수제작부흥을 통해 전주 시민의 손길이 모이고 후대에 이어지면 전주가 진정성과 지속가능성, 품위의 가치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행복한 문화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미, 전주는 한옥마을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심 공간 인프라와 무형문화재와 수공예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 인프라,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

원,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등 문화와 산업시설 인프라 등 전주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핸드메이드시티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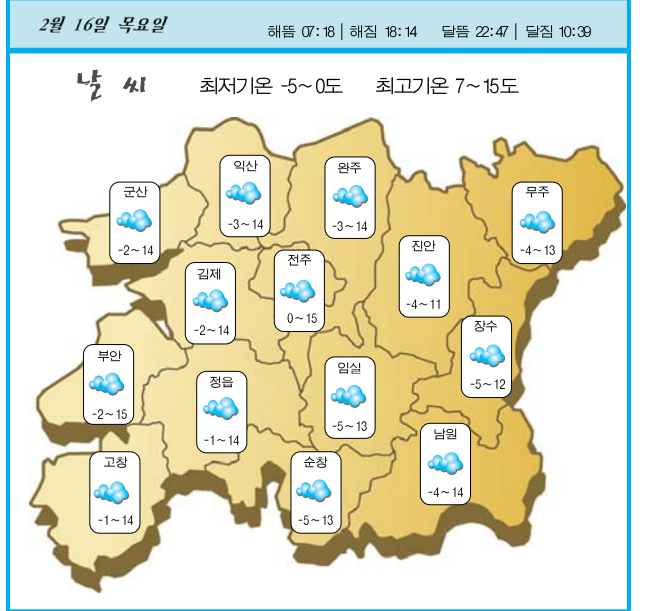
▲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2017 워크는?

전주 핸드메이드시티의 첫 시작으로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전주한옥마을 등 시 일원에서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워크 2017'이 열린다.

먼저 주제를 '핸드메이드, 도시와 삶'에서는 △손길로 변화되는 도시 △손길로 만드는 일상문화 사제 전시 등을 통해 핸드메이드 개념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 '수제작정신' 전시에서는 수준 높고 독특한 국내·외 핸드메이드 제품을 선보인다.

핸드메이드시티 전주의 현재를 보여주는 '동네손' 프로젝트 전시에서는 전주 70여개 공방들을 소개하는 공방지도가 제작되고, 그중 35개 공방이 참여하는 전시와 플라마켓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완판본의 맥을 잇는 전주의 전통을 선보이는 서포전시 '아름다운 수제작'은 시민공모를 통해 모아진 시민들이 꺼내놓은 전주의 아름다움, 상징적인 공간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또,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나무 옷으로 새옷을 입은 한옥마을 태조로의 85그룹의 가로수길을 걷는 일과 전주 시내버스의 외형부터 차량 안 기물들을 수제작해 새롭게 꾸며 선보이는 프로그램도 빠뜨릴 수 없는 재미다.

/김영재기자



마한교육문화회관

학생 · 도서관 · 희망나눔 ·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한교육문화회관은 학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생 · 도서관 · 희망나눔 ·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교육 프로그램은 과학·역사·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교육·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잠재적 소질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올린 교실 등 12개 과정을 방과 후에 운영한다.

또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가족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탁구교실 가족통기타 연주 등 6개 과정을 토요일에 운영한다.

도서관 프로그램은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독서동아리와 유아·어린이자료실을 이용하는 유아와 부모 대상으로 신선행 프로그램인 토요일에

만나는 그림책 이야기 프로그램 등 6개 과정을 운영한다.

장애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 활동을 통한 적응력 향상을 위해 희망나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책놀이 교실 등 3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평생교육은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의 자아실현과 개인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컴퓨터 교실 등 20개 과정을 편성했다.

허희준 관장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적 욕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교육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전북교육청, 학교시설사업

상반기 5002억원 조기 집행

전북도교육청이 재정분야의 특수성을 감안 조기집행 대상 사업 지정·관리를 통해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건비 등 경감경비를 제외한 예산액 8,775억원중 57%인 5,002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도교육청은 3월까지 조기집행 대상액의 28%인 2,457억원을 집행하고 6월까지 5,002억원을 집행해 57%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시설공사 등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컴퓨터, 사무용품 등 각종 물품과 기자재에 대한 조기 구매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학교회계 전출금을 조기에 교부하고 일선학교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실질적인 조기집행을 위해 조기집행점검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해은기자

도교육청, 독서·철학 성장 프로그램 운영

독서와 토론, 소논문 작성 등을 통해 고교생의 철학적 사고와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는 '독서·철학 성장 프로그램'이 올해도 운영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고교 12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하이클래스 독서·철학 성장 프로그램'을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에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고교생들에게 통합교과적 사고의 전개 및 정리에 대한 집중 학습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비교과적 학습 및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교육과정이다.

참여할 학생은 단위학교의 추천을 받아 총 240명을 선발하며 전주, 군산, 익산 지역에서 권역별 거점학교를 정

해 운영하고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지역별로 인문반과 자연반으로 나눠 강좌가 개설되고 대입 진학지도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수업은 무학년 통합 인문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독서·토론·강의후 탐색주제에 대한 소논문 작성 과정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독서·토론·글쓰기

등을 통해 철학적 사고력과 실증적 탐구력을 키우게 된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대학입시에서 자신감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240명을 선발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지원자가 모집예정인원의 2.5배에 육박하는 바람에 최종 선발인원을 280명으로 늘렸다.

/정해은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고
행복한 교육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